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8월 2주~8월 3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 [WTE] 반둥 Legok Nangka WTE 사업, 16년 지연 끝 착공¹⁾(Tempo, 8/10)

- 서부자바 반둥군의 Legok Nangka 폐기물 에너지화(WTE) 사업이 '26.7월 착공 후 현장 시험 단계에 진입, 20ha 사업부지 내에서 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현장 밀도시험을 진행. 잔여 폐기물 매립시설에는 차수막과 침출수 배수관, 폐수처리 시설 등을 설치
- 동 사업은 Bandung Raya 내 6개 시·군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16년 전 부터 추진, 인허가와 정부 보증 및 전력구매계약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지연. 총 사업비는 약 4억불(Rp.7.2tril) 규모이며, '26.7월 착공을 계기로 사업부지 조성 및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등 사업 본격화 예정

○ [철도인프라] LRT Jakarta 1B 사업, 공정률 97.99% 달성²⁾(Detik, 8/10)

- LRT Jakarta 1B(Velodrome-Manggarai 노선) 사업은 공정률 97.99%를 기록, '26.8월내 준공식 개최 목표. 총 사업비 약 2.3억불(Rp4.1tril)로 Jakpro가 발주, Waskita Karya가 시공
- 총 연장은 3.6km이며, Rawamangun, Pramuka, Matraman, Proklamasi, Manggarai 등 5개 역 설치. 현재 공사구간 원상 복구, 2복선 구간 선로 연결 및 각 역 출입구 마감공사 진행 중
- PT Waskita Karya와 PT Jakpro는 선로·신호·전력·통신 및 운영체계에 대한 시범 운행과 안전성 평가 실시. 동 사업 완료 시 대중교통 장려 및 자카르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전망

1) <https://en.tempco.co/read/2117137/new-problems-in-converting-waste-to-energy>

2) <https://finance.detik.com/infrastruktur/d-8612901/lrt-jakarta-velodrome-manggarai-rp-4-1-triliun-bakal-diresmikan-bulan-ini>

○ [도시개발] Bekasi~Cikarang, 데이터센터 투자 유망지역 부상³⁾(Bisnis, 7/30)

- 인도네시아 데이터센터산업컨소시엄(IDPRO)은 Jabodetabek이 디지털 인프라 생태계와 풍부한 전력공급 여력,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를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투자 선호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
- 투자 중심도 도심 소규모 시설에서 캠퍼스형·초대형 데이터센터로 이동하고 있으며, 장기 확장 공간과 고효율 냉각설비, AI 인프라 확보가 핵심 요인으로 꼽힘. Jabodetabek 동부 산업벨트는 안정적인 전력망과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입지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투자자들은 단순 부지가 아닌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입지를 선호

○ [도시개발] 시나르마스-소지츠, Cikarang 주거 공동개발⁴⁾(Bisnis, 8/12)

- 시나르마스 그룹 계열 상장사 PT Puradelta Lestari Tbk는 '26년 하반기부터 서부자바주 브카시군 Cikarang의 델타마스에서 일본 Sojitz Corporation과 공동으로 Meliora 주거단지 개발 추진. 1.8ha 부지에 총 170가구를 조성, 1단계로 68가구를 분양, 분양가는 약 4.5만불(Rp0.8bil)부터 책정
- 델타마스는 약 3,200ha 규모로 주거·상업 및 산업단지가 결합된 복합 신도시이자 시나르마스랜드 대표 개발사업중 하나. 동 사업은 산업단지 근로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설정. 중산층 주택시장 판매가 둔화되는 가운데, 약 2.8만불~11.2만불(Rp0.5~2bil) 가격대 주택에 대한 정부 부가가치세 지원제도 적용을 위해 공사 조기 완료 추진 중

○ [플랜트] 전력공사 PLN, 7,046MW 수력발전 사업 추진 가속화⁵⁾(Antara, 8/5)

- PLN은 '25~'34년 전력공급사업계획(RUPTL)에 포함된 7,046MW 규모 수력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GIGA ONE Hydro' 통합조달 도입.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지역에서 침두 및 기저부하용 수력발전 추진. 침두부하용(1,071MW) 사업은 입찰에 착수, 기저부하용(1,800MW) 사업은 타당성 조사 이후 350MW부터 단계적으로 입찰 예정

3)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30/47/1992309/bekasi-hingga-cikarang-jadi-lokasi-incaran-investor-data-center>

4) <https://banten.antaranews.com/berita/386916/pln-banten-pemprov-perkuat-sinergi-dukung-asta-dita-dan-hilirisasi-industri>

5) <https://en.antaranews.com/amp/news/425667/pln-bundles-7046-mw-hydropower-projects-to-speed-up-ruptl>

- 칼리만탄, 술라웨시 사업은 입찰 준비 마무리 단계로, 통합조달을 통해 사업 추진 효율화와 규모의 경제 확보, 입찰 경쟁 확대 및 가격 경쟁력 제고 계획. PLN은 Sumatra-Java 전력망 연계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25~'34년 RUPTL에 따라 총 315개 수력·소수력 발전사업에서 11.7GW 규모 발전용량 개발 예정

○ [인프라] 안니 정부, '29년까지 관개담 15개 건설에 18.1억불 투입⁶⁾(Bisnis, 7/29)

- 정부소통청(Bakom RI) 부청장 Kurnia Ramdhana는 정부가 '25~'29 국가전략사업으로 담 15개와 관개시설을 확충하고 약 18.1억불 (32.8tril IDR)을 투입한다고 설명. 동 사업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8대 국정과제인 'Asta Cita'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
- 정부는 '26.7월 NTB, Central Java, Bali, Aceh 등 4개 주에서 담 5개 건설을 착공, 현재 전국에서 240개 담을 운영하고 15개를 추가 건설 중. 신규 담은 10억m³ 이상의 저수 능력과 20만ha 이상 농경지 관개를 지원하며, 강우 의존형 농업 구조 개선과 엘니뇨·홍수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인프라] 트랜스 수마트라, 트랜스 칼리만탄 철도망 구축 추진⁷⁾(Bisnis, 7/30)

- 프라보워 대통령은 Semarang Tawang역 개보수 준공식에서 교통부에 Trans-Sumatra 철도망을 차기 중점사업으로 추진 지시. 동 사업 난이도를 언급하면서도 조기 착수 및 Trans-Kalimantan 철도망 병행추진 당부
- 대통령은 대규모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 철도망 구축이 필수 과제라고 강조. 아울러 국영 철도공사 PT Kereta Api Indonesia(KAI)가 추진 중인 'Nusantara Explorer' 신규 열차사업도 시찰

○ [인프라] Jayapura-Wamena 도로 건설로 파푸아 연결성 강화⁸⁾(Antara, 8/3)

- 공공사업부(PU)는 파푸아주와 파푸아 고원주를 연결하는 Jayapura-

6)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29/45/1992036/pemerintah-siapkan-rp328-triliun-untuk-bangun-15-bendungan-hingga-2029>

7)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30/98/1992282/prabowo-bidik-proyek-kereta-trans-sumatra-hingga-trans-kalimantan-merhub-dminta-siapkan-eksekusi>

8) <https://en.antaranews.com/news/425180/indonesia-advances-trans-papua-road-to-boost-connectivity>

Wamena Trans Papua 도로 Mamberamo-Elelim 구간 50.14km 건설중.
'24.7월 착공, '26.11월 준공예정이나 '26.7월 기준 공정률 51.59% 기록

- PU 장관 Dody Hanggodo는 도로·교량이 전국 경제성장 거점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설명. PU는 동 사업을 통해 파푸아 고원주의 물류비 절감과 생필품 접근성 개선, 학교·의료시설·정부서비스 등 접근성 확대 전망
- 사업 구간은 급경사 산악지형, 열대우림, 연중 강우 및 산사태 취약지역을 포함하여 시공 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인프라 인나중국,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 협력 확대⁹⁾](Indonesia Businesspost, 8/11)

-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두 나라 쌍둥이 산업단지(TCTP)’ 협력을 통해 중부 자바 Batang 특별경제구역(SEZ)의 Batang Industropolis, Bintan Industrial Estate 및 Aviarna Industrial Estate를 친환경 제조 거점으로 전환 추진. 투자 규모는 약 22억불(Rp37.1tril)로 추산. 양국은 친환경 기술 이전, 재생에너지, 순환 경제, 산업 간 자원순환 및 국제 공급망 연계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
- Batang Industropolis는 일일 1.8만³ 규모 통합 폐수처리시설과 일 35톤 처리능력의 폐기물 관리시설 등 친환경 기반 시설을 구축, 향후 환경기준·데이터 확보 및 사업 준비 체계 강화 목표. 또한 고용 창출, 직업교육 및 중소·영세기업 육성과 Batang 내 29개 직업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인력개발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계획

2. 주요 기업·기관 동향

○ 호주기업, Batang 특별경제구역에 3.5억불 투자¹⁰⁾(Antara, 8/4)

- 중부자바 주정부는 호주 기업 Pure Battery Technologies(PBT)가 Batang 특별경제구역(SEZ)에 3.5억불(Rp6.33tril)을 투자해 전기차·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용 전구체 양극활물질(pCAM¹¹⁾) 생산시설을 건설할 예정이

9) <https://indonesiabusinesspost.com/7115/business-and-investment/indonesia-china-collaborates-on-green-energy-in-batang-industropolis>

10) <https://en.antaranews.com/amp/news/425400/indonesia-secures-us350-million-australian-investment-in-batang-sez>

11) pCAM(Precursor Cathode Active Material) :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들기 전 단계의 전구체

라고 밝힘. 동 사업은 '27년 착공 예정으로 건설기간 중 100명, 가동 후 약 200명의 고용 창출이 전망되며, 현재까지 최대 규모 투자로 평가

- 중부자바 주정부는 생산품의 수출 및 내수 수요 충족도 추진할 방침, 태양광 발전 및 공공교통 전기차 전환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병행. PBT는 현재 공장 건설을 위한 설계 단계에 있으며, Batang 생산시설은 독일의 기존 정제시설보다 4배 이상 큰 규모로 조성될 전망

○ 러·중, 인니 종단철도 투자 관심 및 노선 검토¹²⁾(Kompas, 8/10)

- 교통부 장관 Dudy Purwagandhi에 따르면 러시아·중국이 수마트라·칼리만탄 종단철도망 투자에 관심 표명중. 국가개발기획부 및 잠재 투자자들과 노선안 검토 중으로, 노선은 기술적 타당성뿐 아니라 투자 가능성과 철도 주변 경제활동 촉진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 예정
- 칼리만탄 종단철도 신수도 연결 여부는 논의 단계로 미확정, 투자 규모는 철도 연장거리, 최종 노선 및 열차 종류에 따라 결정 예정. 정부는 칼리만탄 철도망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운휴 노선 재가동을 통해 지역 연결성 확대 계획

○ 인나·파나마, 경제·무역·투자 협력 강화¹³⁾(Metronews, 8/5)

- 외교부 차관 Arif Havas Oegroseno는 지난 7.30 파나마 외교부 차관 Carlos Arturo Hoyos, 주인도네시아 파나마 대사 Bernardo Brea Rodriguez, 아시아태평양·오세아니아 국장 Carlos Karika와 회담을 진행, 양국 관계 강화 및 경제·무역·투자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양측은 양국 외교정책의 역사와 비동맹운동의 역할을 상기, 파나마의 주권 회복 과정에서 비동맹운동의 외교적 지원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파나마 기업인들의 INA-LAC 2026 참석을 요청, Hoyos 차관 역시 내년 개최 예정인 제3차 중남미·카리브 국제경제포럼에 인도네시아 기업인 초청

12) <https://money.kompas.com/read/2026/08/10/133312826/rusia-dan-china-minati-investasi-trans-railway-indonesia-kemenhub-siapkan>

13) <https://www.metrotvnews.com/read/bVDCPdx7-indonesia-panama-perkuat-hubungan-ekonomi-perdagangan-dan-investasi>

- 양측은 동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 및 신규 사업·투자 기회 발굴 추진 예정. 인도네시아는 동 교류를 중남미·카리브 및 미주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 계기로 활용할 계획

○ 인나-사우디, 전략산업 투자 협력 강화¹⁴⁾(Rri, 8/6)

- 투자·다운스트림 산업부(BKPM) 장관 Rosan Roeslani와 사우디 투자부 장관 Fahad bin Abduljalil Al-Saif는 Jeddah에서 투자 협력 MOU 체결 및 투자 촉진·정보교환·민간기업 협의·전문가 교류 등을 통한 양국 직접투자 확대 추진. 양국은 MOU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분야 투자 및 민간기업 협력 확대 계획
- 사우디의 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1년~'26년 상반기 약 1.26억불(Rp2.28tril) 규모로, 양국은 산업 고부가가치화·제조업·인프라·재생에너지·물류·부동산·디지털 기술 분야 협력 확대 전망. Rosan 장관은 정책개혁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과 함께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기술이전 등 경제협력 강화 기대

3. 정부 정책동향

○ 정부, 300만호 주택공급 목표 달성 위해 인도·중국 벤치마킹¹⁵⁾(Bisnis, 8/1)

- 주택정주부(PKP)는 300만호 주택 공급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도와 중국의 주택공급 사업과 우수사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시장이 외국산 제품의 판매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안전성과 시공 효율, 경제성을 갖춘 건설기술 도입과 중소·영세기업의 공급망 참여를 확대할 방침. 또한 최근 공공지원주택 6만 2,000호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토지·건물 취득부담금(BPHTB)과 건축허가 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할 계획

14) <https://rri.co.id/nasional/2630897/indonesia-dan-arab-saudi-perkuat-kerja-sama-investasi-sektor-strategis>

15)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801/47/1992790/kejar-target-3-juta-rumah-pemerintah-pelajari-model-perumahan-india-dan-cina>

○ Danantara-국영기업규제청, 국영기업 5개년 전환계획 마련¹⁶⁾(Antara, 8/4)

- 국부펀드 Danantara와 국영기업규제청(BP BUMN)은 국영기업의 경쟁력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5개년 전환계획을 구상, 전 국영기업에 공통 적용할 지배구조 개선 · 경영성과 제고 · 장기 기업가치 창출 방향성 제시
- 이어 Danantara Asset Management(DAM)와 내부 회의를 통해 단계별 추진 방안 및 우선순위 조율 △통합 · 구조조정 △인재 육성 · 기업문화 강화 △혁신 · 기술 도입 △기업활동 · 전략적 제휴를 통한 가치 창출 △글로벌 성과 목표 달성 순으로 단계적 추진 예정
- 또한 경영기반 · 인재 · 기술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영기업 전반의 개혁 가속화 목표

○ 국가연구혁신청, 차세대 태양광 패널 국산화 추진¹⁷⁾(Antara, 8/4)

- 인니 국가연구혁신청(BRIN)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 강화를 위해 차세대 태양광 패널의 국내 생산기술 연구, 실리콘 이종접합(HJT/SHJ¹⁸⁾)과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기술을 중심으로 각각 27%, 30% 이상의 발전효율 확보 목표
- BRIN은 태양전지와 원재료의 높은 수입 의존도를 개선하여 차세대 태양광 제조국으로 도약하는 방안 모색. 독일 울리히연구센터(FZJ¹⁹⁾)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차세대 태양광 기술개발 방향과 정책 방안을 마련 및 태양광 제조 생태계 구축 추진
- BRIN은 차세대 태양광 기술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전환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계획

○ 인니, '26.1월~8월초 외국인 자금 59억불 유입²⁰⁾(Antara, 8/10)

- Permata Bank 산하 경제연구기관 Permata Institute for Economic

16) <https://en.antaranews.com/news/425377/danantara-bp-bumn-finalize-five-year-roadmap-for-sce-transformation>

17) <https://en.antaranews.com/news/425407/brin-studies-next-generation-solar-panels-to-boost-energy-independence>

18) 실리콘 이종접합(HJT/SHJ, Silicon Heterojunction) : 결정질 실리콘과 비정질 실리콘을 접합해 발전효율을 높이는 태양전지 기술

19) 울리히연구센터(FZJ) : 독일 정부 산하 종합연구기관

20) <https://www.antaranews.com/berita/5688248/modal-asing-59-miliar-dolar-as-indonesia-masih-jadi-tujuan-investasi>

Research(PIER)는 '26.1월~8월초 외국인 자금이 약 59억불(Rp104.8tril) 순유입되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투자처로서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 통화안정증권(SRBI)에 94억불(Rp166.9tril), 채권에 6.1억불(Rp10.8tril)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반면 주식시장에서는 41.2억불(Rp73.2tril)이 순유출됐다고 설명

- 투자자들이 인니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은 유지하면서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SRBI 등 단기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선별적이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 외국인 자금은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미·이란 간 평화협상 진전 등에 따라 '26.6월부터 회복세로 전환
- 또한 향후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국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자환경의 안정성 제고 필요성 제기

○ 무상급식 사업, 식중독·부패 논란으로 운영 차질²¹⁾(Financial Times, 8/2)

- 프라보워 대통령이 '25년 초 도입한 무상급식(MBG) 사업은 약 128억불(Rp229tril) 규모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휘체계 혼선 및 부패 의혹, 식중독 사고 등이 잇따름. 국민 지지율 역시 62.5%에서 34%로 28.5%p 하락, 현재 6,270만 명이 지원 대상
- 정부는 국가영양청의 관리감독 부실 의혹 조사 및 신규 급식시설 계약 중단과 위생기준 미달 시설을 폐쇄. 재정 부담 확대 및 교육예산 문제와 더불어, MBG 사업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역량을 가늠할 주요 현안으로 부상

○ 재무부, 고속철 Whoosh 지분 60% 이관 및 관리²²⁾(Antara, 8/5)

- 재무부 장관 Purbaya Yudhi Sadewa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Whoosh 운영사 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KCIC) 지분 60%를 Danantara에서 재무부로 이관하는 절차를 '26.9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 현재 60%는 국영기업 컨소시엄이 PT Pilar Sinergi BUMN Indonesia를 통해 보유, 40%는 중국 컨소시엄 Beijing Yawan HSR Co. Ltd.가 보

21) <https://www.ft.com/content/a0ba8b07-2fa2-463b-b80c-55692ae0bf61?syn-25a6b1a6=1>

22) <https://en.antaranews.com/amp/news/425667/pln-bundles-7046-mw-hydropower-projects-to-speed-up-ruptl>

유 중

- 재무부는 이관 후 Whoosh를 재무부 산하 특수목적 수행기관을 통해 관리 예정, KCIC 운영비 및 재정적 비용을 배당 및 사업수익으로 충당해 국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 중국 측은 협력 지속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재무부는 향후 Whoosh 노선의 동부 자바 연장 가능성도 제시

○ 인니 에너지·광물 분야 세외수입, 연간 목표 초과 전망²³⁾(Antara, 8/11)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 Bahlil Lahadalia는 광물·석탄 및 석유·가스 분야 세외수입(PNBP)이 '26년 말 연간 목표의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26.7월 기준 ESDM의 세외수입은 61억불(Rp96.26tril)로 연간 목표 86.3억불(Rp136.18tril)의 70.69%를 달성했으며, 재무부와 ESDM은 국가수입 확대를 위한 협력 지속
- 재무부 장관 Purbaya Yudhi Sadewa는 '26.7.31 기준 세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23%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 또한 '26.6월말 전체 국가수입은 924.8억불(Rp1,459.4tril)로 연간 국가 예산 목표의 46.3%를 달성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
- 세부적으로 세수는 656.7억불(Rp1,035.7tril), 관세·소비세는 96.3억불(Rp152.0tril), 세외수입은 171.7억불(Rp271.0tril)을 기록

○ 투자·다운스트림부, 인허가 간소화로 투자 유치 추진²⁴⁾(Antara, 8/12)

- 투자·다운스트림부는 투자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중. 투자·다운스트림부 차관 Todotua Pasaribu는 '25년 정부령 제28호에 따른 간주 승인 제도를 통해 인허가 처리 기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건설·개발사업의 조기 추진을 지원한다고 설명
- 동 제도는 인허가와 개발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투자 과정을 완화, 현재 인도네시아 약 560개 업종 중 287개 업종에 적용 중이며 확대할 계획

23) <https://en.antaranews.com/news/426657/indonesian-energy-revenues-will-surpass-target-minister-says>

24) <https://en.antaranews.com/news/426781/indonesia-streamlines-licensing-to-speed-up-investment-realization>

- '29년까지 7,284억불(Rp13,000tril) 투자유치 통해 8% 경제성장 달성 목표 투자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기존 26~27%에서 30%로 확대된 만큼 투자 활성화가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4. 녹색산업 동향

○ 에너지광물자원부, 인니 재생에너지 잠재량 3,687GW 발표²⁵⁾(Antara, 7/29)

-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인니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3,687GW에 달하지만, 설치 용량은 16.32GW에 그치는 바, '25~'34 전력공급계획(RUPTL)에 따라 69.5GW를 신규 확충하고 이 가운데 43.6GW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
- 정부는 약 4만 7,800km 송전망을 구축해 전력 접근성을 확대하고, 파푸아 등 오지·낙후 지역에는 재생에너지 기반 소형 전력망을 보급할 방침. 또한 원유 비축 확대,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전기차 보급, LPG 대체 천연가스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자립 기반을 강화할 예정

○ 인니, B50 바이오디젤 의무화 정책 시행²⁶⁾(Kotra, 8/3)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26.7.1부터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B50으로 상향, 의무화. ESDM 장관 규정 제4호/2025 및 장관령 제257호/2026을 근거로 하며, 화석연료 수입의존 축소 및 에너지 자립 강화 목적으로 자동차·철도·광업 등 부문별 기술시험을 거쳐 도입 예정
- 정부는 동 정책 시행 시 B50 기준 94억불(Rp170tril) 규모의 외환 절감 효과를 전망. 다만 메탄올 연간 수요 전망치인 250만톤 대비 국내 생산능력이 40만~60만톤에 불과해 수입 의존 심화 가능성이 있으며, CPO²⁷⁾ 가격 상승에 따른 식용유 가격 부담 및 재정 손실 우려도 제기
- 인니 육상운송사업자협회(Organda)는 B50 미설계 차량이 다수로, 연료필터 교체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 가능성을 지적

25) <https://en.antaranews.com/news/424440/indonesia-has-3687-gw-renewable-energy-potential-ministry>

26) <https://dream.kotra.or.kr/kotranews/>

27) CPO(Crude Palm Oil) : 팜유 원유

○ Danantara, WTE 사업 개발 가속화²⁸⁾(Investor, 8/5)

- Danantara Investment Management(DIM), 자회사 PT Daya Energi Bersih Nusantara(Denera)를 통해 폐기물 에너지화(WTE) 사업 참여기업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공급자 등록 재개, 대통령령 제109호/2025를 기반으로 폐기물 관리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진
- WTE 사업개발, EPC, 기술공급, O&M, PF 등 관련 역량과 실적 보유한 기업·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모집, 앞선 2차례 사전적격심사에는 7개국 기업 참여. DIM과 PT Denera는 대규모 WTE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력, 재원 조달 능력, 장기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

○ 인니 정부, WTE 통한 재생연료 생산 추진²⁹⁾(Tempo, 8/10)

- 인도네시아 식량조정부 장관 Zulkifli Hasan은 국가 폐기물 처리 확대를 위해 폐기물 열분해 기술 도입 추진. 대통령령 제109호/2025 시행으로 폐기물 에너지화(WTE) 사업이 확대 중이며 팔렘방은 '26.10월 가동 예정이나, 현재 추진 중인 13개 시설의 처리능력은 전국 폐기물 발생량의 약 22%에 그칠 전망
- 정부는 매립지에 누적된 폐기물을 열분해해 경유와 유사한 재생연료로 전환, 전국 폐기물 약 20%를 해결하는 방안 추진. 동 기술은 인도네시아 육군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개발 중, 보고르시·보고르군·스마랑시·브카시시·자카르타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진행
- Zulkifli 장관은 전기 중 폐기물 적체에 따른 화재 위험 감축을 위해 폐기물 처리 가속화를 강조, 매립지 부담 완화 및 폐기물 에너지 활용 확대 관련 기술개발 지속 방침

○ 인니 정부, '45년까지 도시버스 100% 전기화 추진³⁰⁾(Investortrust, 8/6)

- 교통부는 '45년까지 도시버스 전기화를 위해 약 64.7억불(Rp116tril) 투자 추진, 교통·개발정책연구소(ITDP)와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年 온실가스 880만 톤 CO₂e³¹⁾ 및 연료 39.2만kl 감축 목표. ITDP³²⁾는 우선

28) <https://investor.id/business/449165/danantara-percepat-pengembangan-proyek-wastetoenergy-di-indonesia>

29) https://en.tempo.co/read/2117087/indonesia-promotes-pyrolysis-technology-to-turn-waste-into-renewable-fuel?tracking_page_direct

30) <https://investortrust.id/business/111984/pemerintah-bidik-100-bus-listrik-pada-2045-butuh-investasi-rp-116-triliun>

전환 대상 11개 도시에서 배출가스 24%, 대기오염 68% 감축 전망

- '26.6월 기준 전기버스는 867대에 그친 가운데 국영 대중교통기업 DAMRI³³⁾는 316대를 추가 도입. 전기버스 가격이 디젤버스 대비 250~300%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환경정책 연구기관 IESR³⁴⁾은 국가 전기버스 전환기금 조성 및 대규모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제안

○ 북술라웨시, 신재생에너지 비중 32%로 확대³⁵⁾(Investortrust, 8/12)

- 북술라웨시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2%이며, 지열발전이 지역 전력수요의 약 24%를 공급. Pertamina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자회사 Pertamina New & Renewable Energy(Pertamina NRE)는 지열발전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풍력·해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확대 추진
- Pertamina NRE 프로젝트·운영이사 Norman Ginting은 정부, 기업, 학계, 지역사회·청년층 협력을 통한 신재생 생태계 강화 필요성 강조. 북술라웨시 부지사 Victor Mailangkay 역시 신재생 사업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기업·대학·지역사회 간 협력 확대 필요성 제기

○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신수도 헌법재판소·사법위원회 청사 '27년 12월 준공 예정 ³⁶⁾(Bisnis, 8/2)
- 신수도청(OIKN)은 중앙정부핵심구역 내 사법지구에서 추진 중인 헌법 재판소 및 사법위원회 청사의 평균 공정률이 12.41%를 기록했다고 발표. 동 사업은 신수도 전면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이며, '27년 12월 준공을 목표
- 사법지구는 15ha 규모로 대법원, 헌법재판소, 사법기관 복합 공간, 사법위원회, 모스크 및 내부 도로 등을 조성할 예정. 사법지구 전체 평균 공정률은 11.8%, 내부 도로(7.8km) 공정률은 27.6%를 기록

31) CO_{2e} : 이산화탄소 환산량,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등가의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값

32) ITDP(Institute for Transportation and Development Policy) : 국제 교통·도시개발 정책연구기관

33) DAMRI : 인도네시아 국영 대중교통기업

34) IESR(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s Reform) : 인도네시아 에너지·환경정책 연구기관

35) <https://indonesiabusinesspost.com/7115/business-and-investment/indonesia-china-collaborates-on-green-energy-in-batang-industropolis>

36)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802/45/1992949/pembangunan-gedung-mahkamah-konstitusi-baru-124-target-desember-2027-rampung>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BSD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및 샵하우스)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토지가 협상, 자체 FS 완 - FS 완료, 주주간협약 문구 협의중
- ('26년 센터목표) 투자 의결 ('26.9월 예상)

○ (주요동향) 대우건설-SML, SHA 문구협의 계속

- 대우건설 싱가포르법인장(인니 겸임), 국토관 동반 협의
- 대우측 법무의견 SML 송부후 피드백 대기중

② 칼리만탄 지속가능 우드펠릿 공급망 구축

< 사업 개요 >

- (원개발사) Innovative Energy Solution (IES)
- (참여기업) 남동발전 (Offtaker), 대아이앤씨 등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우드펠릿 생산설비 건설·운영, 남동발전 등에 장기 공급
- (추진현황) 조림지 토지용도 허가 취득 ('23.5) - 원개발사 IES (싱가포르) 설립 ('24.10) - 인니 자회사 설립 ('25.1) - KIND 사전검토위 통과 (개발비 및 MOU 체결 승인) ('26.3) - 대아이앤씨, 자금지원 FS신청, 승인
- ('26년 센터목표) FS 결과 검토 / 결과에 따라 투자심의 부의

○ (주요동향) 자금지원 FS 용역수행 준비

- 자금지원 FS 최종승인여부 국토부 확인 대기중
- 최종승인 되는대로 자금지원 FS 협약서 체결 및 용역 본격수행 (현재 사업주 자체자금으로 기초용역 수행중)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아르고 마농갈 (Argo Manunggal, 마루베니와 산단 성공적개발사례 보유)
- (참여기업) Gaya (GS건설 싱가포르법인), Beijing Liando (중국계 디벨로퍼)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수방 지역* AMG가 원소유주와 독점 가계약중인 대규모 부지에 전기차 제조업 특화 산업단지를 총 4단계에 걸쳐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AMG-Gaya 전반적 협력 MOU 체결 - `25.10월 GS 사전사업심의 통과, DD비용 승인 - `25.12 정부에 의한 사업순연 - GS 자체 DD 진행중
- ('26년 센터목표) DD 완료 및 투자 의결 (4분기)

○ (주요동향) 정부 부지이슈 해소 / 사업성분석보고서 초안 검토

- 정부의 국산차 생산공장 건립토지 확정 결과 수방산단 부지는 포함되지 않음: 정부이슈 해소 후 토지확보 추진 가능
- Savlis 작성 시장조사보고서 1차완성본 검토: 정부의 인프라지원, 수방 지역 인건비 경쟁력, 대규모 토지인 점은 긍정적
- 인허가, 용도변경, 테넌트 조기확보 원활히 진행시 유망성 높음

④ 까얀1 수력발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인니전력공사(PLN)
- (참 여 사) 원개발사(KHE), 삼성물산, 수자원공사(예정), 스미토모상사(미정) 등
- (사 업 비) 약 27억불 (EPC 약 15억불)
- (사업내용) 900MW 수력발전 댐 건설후 30년간 운영, 전력판매 수익창출
- (추진현황) 원개발사 제반 인허가 취득 (~`20) - 중기전력계획(RUPTL) 동사업 포함 (`25.5) - 삼성물산-KHE JV DPT 등록 (`25.12) - `26.3 KIND FS 신청
- ('26년 센터목표) FS 지원대상 선정 (完) / FS 수행

○ (주요동향) KIND 컨설팅 FS 용역 계속

- 특이사항 및 변동사항 없음

⑤ 코리아센터 재건축 (신규)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코레이트자산운용 등
- (참여기업) 국내건설업계 참여검토중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주inni대사관 옆 노후건물 철거후 복합시설 신축
- (추진현황) 코레이트자산운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6.2) / 코레이트자, KIND 도시개발 사업실 ('26년초, '26.7) 협의 / KIND 센터 참여의향사 협의 ('26.2~3Q)
- ('26년 센터목표) 토지 개발권/사용권 확보가능여부 확인 / 딜파이프라인 등재

○ (주요동향) 참여의향사 면담 / 토지 확보여부 확인예정

- 코린도그룹, 대우건설, 코레이트자산운용 면담 및 교신 통해 각사 입장, 추진동기, 의지 파악
- '74년 확보된 토지로서 현재 변경된 법령하에서도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이전이 가능한지 우선파악 예정

⑥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투자의결 完)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그룹 계열사) - 한투그룹, KIND, S펀드 출자 싱가포르 SPC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 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본사 투자의결('25.9.15) / 골조준공식 개최('26.6) / 수요가 협상중
- ('26년 센터목표) 준공 및 운영준비 완료 / 후속안건 발굴

○ (주요동향) 공사 및 수요가 협상 마무리 단계

- 10월말 또는 11월초 준공식 개최 예정

2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26.8월 2주~8월 3주차)
 - 네트워킹 7건 : 하이테크Eng · 무역보험공사 · 건설공제조합, 주인니 건설업협의회, 주인니 금융협의회, SG코퍼레이션, PT GTI · 유신, ST그룹, '26 국제도시계획컨퍼런스(ICAPPS),
 - 사업개발 8건 : 주택공사(Perumnas) · 롯데건설, GGGI, LH, 수출입은행 · 수마트라 명예영사, 하이테크Eng, 코린도그룹, 주택정주부, 신수도청
 - 대관업무 3건 : 국회의원 공공 및 기업간담회, 국토관 · 대우건설, 국토관 · 건설공제조합 · 한인도 · 교민 로펌